



# 보이지 않는 손길

\* 6/16(화) 에스더4-10장

## 지난 통독줄거리

왕하25 남유다 멸망  
시편137 포로살이의 서글픔  
애가1-5 멸망, 슬픔, 고통, 간구  
에스라1-5 귀환, 성전재건 시작/중단  
학개/스가랴 성전재건 재개 촉구

## 에스라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5:2-6장 성전건축 완성

## 에스더 타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1-2 타국 유대인 디아스포라  
3-4:3 위기: 모르드개와 하만  
4:4-5:8 결단: 모르드개와 에스더  
7-8 하만의 죽음, 새로운 조서  
9:1-16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구원  
9:17-10 부림절의 제정

##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고레스 559-530(주전)  
고레스 칙령(538) 1차 귀환(536)  
성전재건 시작  
캄비세스 530-522

다리오 (다리우스1) 522-486  
성전재건 중단(16년간) 학개  
재개(520, 다리오2년) 스가랴  
완성(515, 다리오6년)  
아하수에로 (크세로크세스)  
486-465 에스더, 모르드개

아닥사스다1(통기마누스)  
2차 귀환, 에스라(458) 영적개혁  
3차 귀환, 느헤미야(445) 성벽재건

## 참고도서

다시 일어서는 목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 안식일, 음식규정, 이방인과의 결혼문제나  
기도 생활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왕>은 190차례나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궁 안에서 벌어진 정치, 권력의 세계를 다룹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성전이 아니라 페르시아 수산궁입니다.  
대통령 관저 혹은 정부종합청사 같은 <세속>장소입니다.  
에스더는 유다출신 영부인입니다.  
모르드개는 궁 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였습니다.

<수산궁>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믿지 않는 동료들과의 만남,  
신앙 없는 가족들과의 행사나 정치, 경제 현장과 같습니다.  
에스더는 <수산궁> 한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수산궁>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만>, <아하수에로>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도  
하나님이 지으신 큰 세계의 지극히 작은 일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간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손가락’ 만이 아니라 ‘열 손가락’을 움직여 일하십니다.  
우연으로 보이던 각각의 일들, 각각의 만남이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후손입니다(2:5).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왕.  
이제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은 그 질긴 불순종과 악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냅니다(9장).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기까지 하나님은 열손가락으로 일하십니다.  
실무를 주관하는 해개를 예비하시고 호의의 마음을 주십니다(2:9).  
특별히 비용을 들여 꾸밈이나 스펙을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자로 사랑받게 하십니다(15절).  
그리고 최종 결정자인 왕의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17절).  
모르드개가 평소처럼 일할 때에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22절).  
에스더와 모르드개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결단케 하십니다(4:14).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백성 뿐 아니라 <수산궁>에도 두루 미칩니다.  
왕은 하필이면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 시기에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6:1),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우연히> 모르드개가 자신을 구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2절).  
<갑자기> 마음 가운데 모르드개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 마음이 일었고(3절)  
<우연히> 하만이 그곳에 있어 그로 하여금 모르드개를 위한 일들을 행하라 명합니다(11절).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절할 요량으로 뜰에 섰다가, 모르드개의 말잡이가 됩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로 앞날을 예견합니다(1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수산궁>을 가려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일이라도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

에스더가 왕후여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부름 받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를 통해서도,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궁> 한 가운데서 에스더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 없는 장소, 이유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